

# 완주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상수도 개발사업 공사 개요관 없어 안전노프 등 사고 방지시설 미설치

완주군 농촌생활용수개발을 위한 건설현장에 안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간의 도로공사 현장에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차량, 이륜차, 통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완주군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에서 발주해 전주 D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비봉·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관로공사가 진행되고 현장에 '마구잡이식' 공사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지고 있는 완주군은 '탁상행정'으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

이곳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할 공사 개요 관은 온데간데 없고,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오가는 차량, 이륜차,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노프, 피드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 표면과 굴착한 도로 표면이 어떤 곳은 5cm 가량 높이가 차이가 벌어져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주민들에게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굴착한 도로에는 흙탕물 방지와 비산방지 발생을 막기 위해 부직포를 깔아야 하는데 이곳 현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봉면 한주민은 "울퉁불퉁, 도로상태가 엉망이예요.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 위협은 군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안된 부분은 업체에 시정요구를 했다"면서 "다시



완주군 발주 비봉·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현장.

확인해 위험하지 않게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 명품수박 본격 출하

최상의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는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고원 수박'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진안 마이산 명품수박은 청정지역 고령지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아삭아삭한 식감과 11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진안 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된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고원' 수박의 재배면적은 82ha, 177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4,000여톤의 물량에 60억 원의 출하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1,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향면 선별장에 비파괴당도 선별·포장장을 갖춰 품질향상과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당도 높은 수박을 공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별된 수박은 7~9kg이상의 중량으로 청과사업단과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도매시장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리스

###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사진)가 25일 하루 일정으로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제250회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유송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2년 동안 지방자치의 선도를 위한 강령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후반기 의정활동의 첫 걸음인 만큼 원활한 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틀, 이번 임시회에서는 삼일위원회에서 검토한 ▲2016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태권도진흥재단 토지 교환)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변경규약안에 대해서는 가결처리 되었으나, ▲무주 향토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끝에 미로 안건으로 처리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사과 제2도약 발전 다짐대회

### 日 왜화재배연구회원 초청 기술교류·발전방안 모색

장수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왜화재배연구회(아오모리시과협회 회장 후쿠시)를 초청해 명품 장수사과 제2도약 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다짐대회는 장수군과 일본 아오모리현의 선진 사과재배 기술공유와 농업인간의 교류 화합을 통해 사과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왜화재배연구회원, 한국사과

협회원, 관내 사과재배 농업인 등 1,200여명이 참여한다.

첫날인 25일엔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일본 아오모리 왜화재배연구회 기술교류와 한·일 세척지방추형 수형구성 및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 등이 실시됐다.

26일엔 장수지역 고품질사과연구회 선도농가를 방문, 세계적인 사과재배 기술자인 일본 아오모리현 나리타츠 카토시 일본 왜화재배연구회장이 농가견설팅을 실시하는 현장교육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날인 27일엔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장수사과재배 농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아오모리현 사과재배 기술교류 20주년 기념해 장수 사과발전회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장수사과 발전을 위한 토론, 특별강의, 세척지방추형 수형구성 방법 및 과원관리에 대한 현장견설팅 등을 실시한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발전 다짐대회를 통해 장수사과가 명품사과로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으뜸완주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민선6기 후반기가 이끌어 갈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으뜸완주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의 균형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민선6기 3대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와 2대 중점과제인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복지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로 총5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제안은 내년도 완주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완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완주군민이기에, 완주 고유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 제안과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등 다양하고 적극적

인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완주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으뜸상 1명(130만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3명(각50만원), 장려 10명(각20만원) 등 총 15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농식품 가공창업반 운영

###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은 농식품 가공창업(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50명)한다. 접수는 8월 5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과 농업인상담소에서 받는다

농식품 가공창업(기초)반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8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 간 진행(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명품화교육장)한다.

강의는 한국식품정보원 강사들이 맡아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농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시장전망을 비롯해

△성공적 창업을 위한 마인드 확립, △고객감동 사람 마케팅, △지역농산물 이용한 부가치 창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농산물가공 창업 인허가 절차, △품목제조 보고제도의 이해, △성공적 창업 정착을 위한 유사업종 환경조사, △농·식품 사업계획서 작성실습을 지도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강혜경 지원경영담당은 "농·식품 가공창업(기초)반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7년 심화반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의 기반이 되고 농가소득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 단속 총력

완주군은 7월말부터 한 달간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광행락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물가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피서지내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수시 물가동향 파악, 개인서비스요금 부담인상을 감시하고 물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부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차단 등 물가안정에 전 행정책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

여 불법 바가지요금에 적극 대처하며, 물가동향 감시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업자간의 탐합 행위, 물가 부담인상 업소 등을 집중 감시하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나설 방침이다.

점검결과 가격 과다 인상업소 등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상습적 불법행위 업소는 위생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성수 포동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25일 성수면 포동마을을 2016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9월부터 마을안길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전면 광장 포장, 마을경관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세부사업을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공동체 생활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북도가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들고자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동마을을 비롯한 도내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소비자개발센터 공정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22일 장수를 일원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사)한국여성연합 장수군지부 소비자개발센터 및 공무원 등 30여명은 장수읍 시가지에서 불법사금융 및 예약부도 근절을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예약 후 취소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에 의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예방 방법, 피해 상담·신고 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 배부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홍보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쫄,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25일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팀장 및 파출소장, 부서 성과담당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 각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16년 하반기 추진 방향에 논의했다.

이틀, 4대 사회안전도 향상을 위한 치안활동의 방향제시 및 기능별 업무 협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이에 최성규 서장은 "상반기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반기에도 각 기능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해줄 바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이엔제이그래픽

J&J

GRAPHIC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